

대학생들의 소비자 비윤리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

이 은 희(인하대 교수) · 장 경 자(인하대 교수) · 나 영 주(인하대 교수)

기업이나 소비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수도 있으나,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의 거래관계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.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소비자비윤리 의식과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, 소비자비윤리 의식과 행동의 하위차원을 규명하며, 이를 토대로 소비자비윤리 의식 유형과 행동 유형을 분류한 후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하여 전국 6대도시(서울, 인천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)에 소재한 전국 남녀 대학생 1,1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게 하였다. 조사는 2003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, 총 1,020명이 응답하였다.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.

- 1) 대학생들의 소비자비윤리 의식은 5점척도상 3.62, 비윤리 행동은 2.31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비윤리 의식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, 실제적인 비윤리 행동도 그리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소비자비윤리 의식에 있어서는 '상점이 마음에 안 들면 상품, 시설을 일부러 훼손', '상점 물건을 만지다 파손한 후 그냥 두고 나옴', '예약한 후 못 가게 되어도 취소 안 함', '가게 주인 허락 없이 상품포장 뜯음' 등을 가장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, 행동에 있어서는 '물건을 뜯어보다가 살 때는 뜯지 않은 상품을 가져 감', '수업 교재나 책 등을 복사하여 사용' 등의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2) 요인분석 결과 소비자비윤리 의식은 4개의 요인으로 묶였는데 불법(무단복제나 가짜상품), 상품손상과 부당손실 유발, 거래시 속임, 부당이득으로 명명하였고, 소비자비윤리 행동은 5개 요인으로 묶였는데 불법, 부당이득, 낭비적 사용과 상품손상, 부당가해, 거래시 속임으로 명명하였다.
- 3) 요인점수를 토대로 한 소비자비윤리 의식 유형 분류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, 한 집단은 거래시 속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점수가 높았고 다른 집단은 낮았다. 따라서 高비윤리의식 집단(827명)과 低비윤리의식 집단(108명)으로 명명하였다. 또한 소비자비윤리 행동 유형 분류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, 한 집단은 불법과 부당이득의 요인점수가 높은 반면 낭비적 사용과 상품손상, 부당가해의 요인점수가 낮았고, 다른 집단은 반대로 나타났다. 따라서 적극적 비윤리 행동집단(600명)과 소극적 비윤리 행동집단(405명)으로 명명하였다. 이들을 결합하여 네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고의식 적극적 행동집단(504명), 고의식 소극적 행동집단(323명), 저의식 적극적 행동집단(96명), 저의식 소극적 행동집단(82명)이었다.
- 4) 가족의 월수입과 주관적 가계경제수준은 적극적 행동집단이 소극적 행동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네 집단 분류에 있어서는 저의식 적극적 행동집단이 가장 낮고 고의식 소극적 행동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주관적 가계경제 수준에 있어서는 저의식 집단이 고의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5) 월평균 용돈은 저의식 집단이 고의식 집단보다 많고, 저의식 적극적 행동집단이 다른 세

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신용카드 연체 경험은 고의식 집단이 저의식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돈 번 경험은 적극적 행동집단이 소극적 행동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, 돈을 번 경우 번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적극적 행동유형이 소극적 행동유형보다 저축 또는 용돈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, 오락·의생활·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.

- 6)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저의식 집단이 고의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적극적 행동 유형이 소극적 행동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